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의 가치 ‘극대화’... 새 엠블럼 장착

기아 ‘The 2022 스팅어’ 출시

레인센서 등 인기 옵션 기본 적용
외장 ‘에스코트 그린’ 색상 추가
2.5 가솔린 터보 3878만원 부터

기아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텅어’가 신규 엠블럼을 적용하는 등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롭게 돌아온다.

기아는 6일 ‘The 2022 스팅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The 2022 스팅어는 기아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스팅어 마이스터의 연식 변경 모델이다.

기아는 The 2022 스팅어에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하고 영국의 에스코트(Ascot) 경마장에서 착안한 신규 외장 색상 ‘에스코트 그린’을 추가 운영한다.



기아 The 2022 스팅어 에스코트 그린.

기아는 엔트리 트림 ‘플래티넘’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레인센서와 후드 가니시를 기본 적용했으며 상위 트림 ‘마스터즈’에는 7인치 클러스터·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다이내믹 밴딩 라인을 기본화했다. 아울러 스팅어의 역동

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줄 ▲ 디자인 특화 트림 ‘아크로 에디션’과 ▲ 리어 스포일러를 신규 운영한다.

최고·정점(Acro), 무채색(Achromatic)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크로 에디션은 19인치 디자인 휠과 블랙



기아 The 2022 스팅어 아크로 에디션 실내모습.

웨이드 헤드라이닝, 크래쉬패드/도어 센터트림 스웨이드 감자기, 체인 볼륨 패던 스웨이드 시트 등을 적용해 실내·외 고급감을 한층 높였다.

The 2022 스팅어의 판매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플래티넘 3878만원 ▲마

스터즈 4275만원 ▲아크로 에디션 4388만원, 3.3 가솔린 터보 ▲GT 4678만원 ▲아크로 에디션 4756만원이다.

한편 기아는 The 2022 스팅어 출시와 함께 ▲36개월 동안 매월 차량 가격의 약 1%만 납입할 수 있도록 차량 가격 최대 64% 유예 ▲2.5% 특별 저금리 적용 ▲유류비 일부 지원 ▲개인 고객 중고차 보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매 프로그램 ‘1% 퍼포먼스’도 함께 마련했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2 스팅어는 고급스러움과 역동적인 요소를 더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함께 준비한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의 가치를 경험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 탄소 배출 없는 ‘항공유’ 쓴다

SK에너지와 탄소중립항공유 도입 ESG 경영 통해 기후변화 적극 대응

대한항공이 SK에너지와 탄소중립항공유 도입 협력에 나선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친환경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제주도와 청주로 향하는 국내선 항공편의 탄소중립항공유 1개월 분량을 SK에너지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탄소중립항공유란 원유 추출, 정제, 이송 등 항공유 생산 과정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산정한 후, 해당량만큼 탄소배출권으로 상쇄해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 항공유다.

현재 항공기 운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2~3% 수준이다. 글로벌 항공업계의 지속적 성장세

에 발맞춰, 각 항공사들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고심 중이다. 대한항공도 이에 따라 탄소중립 성장을 달성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감축 수단을 마련해 대응 중이다.

대한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로 기단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최근 에어버스 A220-300 항공기에 최신 엔진을 장착해 동급 항공기 대비 좌석당 탄소배출량을 약 25% 감축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2017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연료가 혼합된 항공유를 사용해 미국 시카고~인천 구간을 운항해 바이오항공유 도입의 전기를 마련했다. 올해 6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바이오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9년 기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 스틱을 모두 종이 제품으로 교체하고, 매년 몽골과 중국 사막 지역에 나무 심기 활동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환경보호를 실천해왔다.

대한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ESG 경영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를 중심으로 회사 전략을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친환경 항공기인 보잉 787-10 추가 도입을 위한 ESG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탄소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생활가전 스타트업 전격 육성

‘홈 테크 이노베이터’ 경진대회 개최
사업화 지원금 1000만원 등 지원

LG전자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으로 생활가전 분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LG전자는 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생활가전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LG 홈 테크 이노베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가전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LG전자만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30일까지 국내 스타트업 이벤트 플랫폼이 벤처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 전환(DX)·신사업 관련 기술·제품·사업모델·ESG 등이다. 대상은 ▲LG 가전, 스마트홈 플랫폼인 LG 씽큐 앱과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LG 가전과 연계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및 사업화모델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가전 관련 부품 기술 및 액세서리 사업모델 ▲세대별, 공간별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신가전 제품 아이디어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한

경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사업화 기술 및 아이디어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다.

지원한 팀 중 최대 10개의 과제가 선정된다. LG전자는 약 3개월 동안 콘셉트 증명 과정을 지원하며 시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화지원금도 1000만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스타트업 투자자들과 함께 사업성 관점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최대 3개 팀이 최종 선발된다.

LG전자는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생활가전 제품에 특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일상생활 속의 식주와 직결되는 생활가전 특성상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LG전자의 파트너임을 증명할 수 있는 ‘LG 홈 크루’ 멤버십을 받는다. 이를 받은 스타트업은 마케팅 등에 LG 홈 크루 멤버십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LG전자는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 사업 노하우 및 기술 멘토링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창대 기자 cdl@

태광산업,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시범사업 나서

한수원·현대차·SK가스 등과 맞선

태광산업이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시범사업에 나선다.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LS일렉트릭, SK가스, 두산퓨얼셀,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부생수소를 활용한 부하대응 연료전지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3일 이들 기업과 비대면으로 ‘울산미포산단 부하대응 연료전지 시범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울산미포산단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소 일부는 VPP 플랫폼과 연계해 SMP(계통한계가격), 연료비 등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하는 부하대응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



(왼쪽부터)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 유수경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박용상 LS일렉트릭 대표이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윤병석 SK가스 대표이사, 정찬식 태광산업 대표이사. 지난 3일 열린 ‘부생수소를 활용한 울산미포산단 부하대응 연료전지 시범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MOU)’ 비대면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태광산업

약에 따라 한수원을 비롯한 기업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모델이 적용되는 신규 사업 추진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 태광산업은 원료인 부생수소를 공급한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및 제철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가

스를 압력순환 흡착공정 등으로 정제해 순도를 높여 생산하는 수소를 말한다.

부생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는 LNG를 원료를 하는 수소연료전지와 달리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순도도 더 높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인터, 북미서 전기차 부품 수주

전기차 34만대분, 1450억 규모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이레AMS와 함께 북미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으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수주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모빌리티 사업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레AMS와 함께 북미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으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주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급하는 물량은 전기차 약 34만대 분

량의 하프샤프트로 약 1450억원 규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8월 해당 고객사와 계약한 2만대 분량을 포함해 총 36만대 차량분의 하프샤프트를 세부 조정과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중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프샤프트는 배터리전기차의 구동축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구동축은 구동모터의 구동모터의 구동력을 감속기를 통해 양축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양성운 기자